



### 4·9 총선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예비후보 집중탐구

# 장명재

## 정체의 섬으로 전략한 포천시 살리는 준비된 경제전문가

### “4년 후 확보된 포천·연천 ‘장명재를 정말 잘 뽑았다’ 고 하도록 일하겠다”



#### 약력 및 경력

- ▶성명 : 장명재(만 46세)
- ▶출생지 : 포천시 일동면
- ▶주요학력
  - 일동초등학교 재학중 서울로 전학
  - 서울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주요경력
  - 대한합민민주당 정동영 대통령 후보 부대변인
  - 대한합민민주당 포천시·연천군 선거대책위원장
  -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현)
  - 삼성전자(정보통신부문)
  - 문화상 담의장 경제특보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정책개발위원(현)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전문위원(현)
  - 대한합민민주당 경기도선대위 농업경제정책제고특위 원장
  - (사)신산업정책포럼 사무처장(현)
  - (주)기산텔레콤 고문(현)
  - KT 요금연구반 연구위원
  - 한국IT청소년단 운영위원(현)
  - 연천닷컴 칼럼위원(현)
  - 고려대학교 교우회 포천시지부 이사(현)
  - 한국리틀엔젤 포천리틀야구단 고문(현)
  - 오마이뉴스 기자(현)
  -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연천군·포천시, 열린우리당, 2005.4.30)
- ▶취미 : 등산
- ▶가족관계 : 처와 2남
- ▶평소소신
  - 過猶不及(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 총체적인 의미에서 포천시 현안문제와 해결방안

성장동력이 없는 낙후된 지역경제가 포천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포천 인구의 양주, 남양주는 전철이 들어오고 외지(外地)에서 기업과 인구가 유입되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포천만 발전에서 고립된 '정체의 섬'으로

전락하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천 정치인들의 공인(公人)의 식과 책임의식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양주, 양주의 경우 국회의원과 시장이 각각 다른 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은 국회의원과 시장이 같은 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반복과 갈등으로 지역발전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정치인들 간 갈등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폐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서로 남 탓만 하지 말고,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 낙후된 포천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것인가를 고민할 때 포천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 분야별 현안문제와 해결방안

**1. 지역경제부문**  
2006년도 기준 포천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포천의 암담한 현실입니다. 인구조사와 LG필립스 LCD단지를 유치하여 인흥 산업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남양주·양주 등은 외지기업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의 산업단지는 양분지방산업단지가 유일하고 대기업 투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주민이군이 반박하는 '공여지 개발'이 포천을 기회의 땅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006년 2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첨단업종의 신설 및 4년제 대학 신설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포천시에 신평산업단지를 비롯한 4건의 사업을 확정된 바 있는데, 국회에 들어가면 개정안을 조기에 통과시켜 법적 규제를 풀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여지와 그 주변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겠습니다. 총 667억원을 투자하여 진행 중인 대전테크노파크사업과 연계하여 포천을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시키겠습니다. 포천의 대표적 산업인 섬유산업과 가구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소홀음, 가신면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의 섬유공장과 가구공장을 집적시켜 체계적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현재 1배럴에 100달러의 고유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에너지 확보가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정부도 수소, 태양광,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포천도 우물안 개구리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에너지산업에 진출해야 합니다. 현재 신북면에 건설 중인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 생산을 늘리고, 신북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활쓰레기, 가구·섬유 공장의 폐기물, 축산분뇨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에너지와 환경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 교육부문**  
2007년 현재, 포천시는 초등학교 32개교 12,610명, 중학교 13개교 6,392명, 고등학교 6개교 4,777명이 재학 중입니다. 이 수치는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 학생들을 지역 내 학교에서 육성시킬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역 내 학교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도시에 뒤떨어지지 않는 교육 여건을 갖추어준다면 굳이 학생들이 대도시로 향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일동종합고등학교의 '일동중고 명문고 만들기 프로젝트'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교육부로부터 농어촌우수학교 모델육성을 위한 시범학교로 지정받고 심화학습을 위한 기숙사 건립, 우수교사 유치 등을 통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포천여중의 '방과 후 학교 활성화 프로그램'도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활성화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학생들이 선호하는 외국어교, 특성화고 유치도 포천의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용인 외국어교가 본보기가 될 수 있는데, 용인에 소재한 외국어대와 용

인시가 협력하여 개교한 이 학교는 용인 지역의 우수 학생뿐만 아니라 용인 이외 지역의 우수 학생들도 대거 지원하는 등, 교육여건만 양호하다면 굳이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몰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3. 교통부문**  
포천의 중심부를 지나고 있는 43번 국도의 꼭 막힌 교통체증이 포천의 교통 현주소입니다. 교통물류가 원활해야 기업과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포천의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개발이 먼저가 아니고 도로, 전철 등 교통인프라가 먼저입니다. 교통인프라 확충은 포천시의 미래성장 동력인 관광산업의 전제조건입니다. 전철과 도로가 뚫려야 그 주변에 산업단지와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일자리와 돈이 창출되고, 외지 인구가 기업에 유입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주요 도로사업이 하나하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기획예산처는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2009년에 착공하여 2014년에 개통 예정인 민자고속도로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제는 '전철 포천연장사업'입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전철이 통과하지 않는 지역은 발전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통과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전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건설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반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정부-포천-철원간 수도권 광역전철연장사업이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하여 반드시 포천의 전철시대를 열겠습니다.

**4. 관광산업부문**  
포천시는 산과 계곡이 어우러지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산정호수, 일동온천, 이동갈비, 윤악산, 포천국립수목원 등 기존의 종합관광자원과 골포장, 승마장, 허브아일랜드, 고모리 카페마을 등 다양한 레저 휴양시설이 이미 들어

서 있어 관광객원베틀화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관광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관광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동·일동-영북면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받은 후, 이 일대를 레저, 스포츠, 온천, 먹거리가 어우러진 대규모 관광휴양레저타운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맑은 물, 찰진 곡식을 자랑하는 포천의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포천을 '전통주 특구'로 지정하여 포천의 특색있는 술들을 세계적 명품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5. 농업부문**  
우루과이 라운드, FTA 등으로 인한 저가의 외국 농축산물이 국내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포천의 농축산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축산물의 고품질화, 지역특화 품목 육성, 그리고 영농현대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포천의 농축산물이 외국산 농축산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6월 이동면 도평리가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앞으로 5년간 5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됐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농림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규모 농산물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포천을 수도권 북동부 지역의 농수산물 유통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경기 북부 농산물을 포천 통기분게회'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정부-포천-철원간 수도권 광역전철연장사업이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하여 반드시 포천의 전철시대를 열겠습니다.

**6. 사회복지부문**  
소외계층에 대한 최대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조성하여 노인과 장애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육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하여 유아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지역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7. 문화예술부문

포천시는 '포천 아시아 미술제', '한국민속예술축제', '명성산 역사꽃축제', '윤악산 단풍축제', '이동동장군축제' 등 많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는 막대한 예산만 허비할 따름입니다. 이제 포천도 문화의 '블루 오션(Blue Ocean)'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문화계도 이제는 과거 행태를 답습하지 말고, 독창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문화산업의 화두는 콘텐츠입니다.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이 발달로 문화산업의 '블루 오션'입니다. 역동적인 젊은 약마의 응원, 한국적인 감성을 내세운 한류 열풍 등은 기존 콘텐츠가 흉내낼 수 없었던 독창성을 보여 주었기에 성공신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포천의 문화예술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닌, 우리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인 콘텐츠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포천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콘텐츠를 결합시켜 경쟁력있는 포천의 문화예술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견해

포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화합보다는 분열, 조화보다는 갈등이 만연된 지역문화입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토박이나, 외지인이냐?'로 구분하는 '끼리끼리' 의식이 청

산되지 않는 한 포천의 발전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 간 분열과 갈등은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리더들이 힘을 합쳐도 부족한 관에, 사사건건 대립과 갈등을 일삼고 있으니 포천의 앞날이 심히 걱정될 뿐입니다. 수도권 인근 지역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포천은 리더들간 갈등이 시민들 간 갈등으로 확산되어 포천은 계속 침체의 길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민들을 리더들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 유권자들에게 당부할 사항

국회의원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을 선택한 지역구의 대표로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능력이 있는지, 누가 포천의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나라 일을 해본 사람, 일할 줄 아는 사람, '준비된 경제전문가' 장명재가 지역주민을 모시고 4년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4년 후 확보된 포천·연천을 보고 장명재를 정말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드시도록, 저의 경험과 능력 모두 지역발전을 위해 쏟아 붓겠습니다.

귀사의 제품 포장에는 **EPS** 산업이 함께 합니다!

# 고품질! 저단가!



▲식품용기



▲전자부품 트레이



- **진공성형** : 각종 문구류 케이스, 식품용기, 농자재류, 전자부품트레이, 각종 브리스타용 덮개 등
- **게도바시** : 오디오·비디오 케이스, 화장품 케이스, 학습교재 등
- **고주파가공** : 브리스타접착, 크레파스, 각종 필기류 등 경·연질 접착
- **건축자재** : 가설 방음벽, 건축내외장재-에버우드/뱀부월드

주소 :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237-3  
 전화 : 031)543-8338 H.P 011-796-4811  
[www.epsko.co.kr](http://www.epsko.co.kr)